

## 7 성만찬론에 나타난 칼뱅의 교회일치 를 위한 노력 :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 (1541)과 「취리히 합의」(1549)를 중심으로

박경수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사

### 1. 들어가는 말

성만찬은 교회의 성례 중 하나이다.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맛볼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과의 일치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만찬 교리는 종교개혁 시기 이후로 분열을 초래하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되어 왔다. 성만찬 문제는 루터와 츠빙글리를 분열시켰고 그들은 끝내 화해하지 못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성만찬은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핵심적인 논쟁거리 중 하나가 되고 있다.<sup>1)</sup>

1. ‘에큐메니컬’이라는 용어는 ‘온 세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메네(oikomene)에서 유래하였다. 이 단어는 시대마다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종교개혁 시기 이후로, ‘에큐메니컬’이란 단어는 많은 교회들 혹은 다양한 교파들 사이에서의 일치를 위한 노력과 표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본 고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에큐메니컬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오늘날 이 단어는 종종 선교운동이나 종교적 다원주의와 연결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자세한 역사를 위해서는 Ruth Rouse and Stephen Charles Neill, *A History of the*

본 고에서 필자는 특별히 칼뱅의 성만찬론을 통해 그가 어떻게 16세기 개혁자들 사이에서 일치를 이루고자 노력했는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16세기 상황에서 교회일치를 위한 칼뱅의 노력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에 국한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급진 종교개혁자들을 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칼뱅을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에 다리를 놓은 개혁자로서 조명하면서, 그가 중간에서 어떻게 루터와 츠빙글리의 견해들을 조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그가 스위스 개혁교회의 일치를 위해 불링거를 대표로 하는 취리히의 목회자들과 어떻게 성만찬에 관해 합의를 이루어 갔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자는 교회일치의 추구자로서 칼뱅의 노력과 저술들을 다룰 것이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필자는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 1541)<sup>2)</sup>과 「취리히 합의」(Consensus Tigurinus, 1549)<sup>3)</sup>에 관심을 국한시키고자 한다. 칼뱅의

<sup>1)</sup> Ecumenical Movement 1517–1948, vol. I, 그리고 Harold E. Fey, *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1948–1968*, vol. II(Geneva : WCC, 1986)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Willem Adolf Visser 't Hooft, “The Word ‘Ecumenical’: Its History and Use,” in *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1517–1948*, vol. I, 735–740을 보라.

<sup>2)</sup> John Calvin, “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r. J. K. S. Reid(London : SCM Press, 1954) : 142–166. 「소논문」은 1540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쓰여졌고, 1541년 제네바에서 출판되었다. 이 「소논문」에서 칼뱅은 성만찬과 관련된 많은 주제들, 즉 제정의 말씀, 성만찬의 유익들, 올바른 사용, 오류들, 논쟁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테오도르 베즈는 이것을 ‘프랑스 동족들을 위해 칼뱅이 쓴 성만찬에 관한 작지만 황금 같은 논문’이라고 평하고 있다.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on the Doctrine and Worship of the Church*, Vol. 2, tr. Henry Beveridge(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8), 163.

<sup>3)</sup> 필자는 많은 영어 번역들 가운데 두 개의 다른 본문을 사용할 것이다.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194–244에 나오는 Henry Beveridge의 번역과 “The Consensus Tigurinus,” *Journal of Presbyterian History*, Vol. 44 (1996) : 45–61에 나오는 Ian D. Bunting의 번역이 그것들이다. 베즈는 “이 문서는 칼뱅과 불링거를 결합시켰고, 제네바와 취리히 교회들을 단단하게 묶어

「소논문」은 성만찬에 대한 그의 가르침과 교회일치를 위한 입장이 분명히 드러난 글이고, 「취리히 합의」는 교회일치를 위한 칼뱅의 실질적인 활동의 대표적인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 두 글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칼뱅의 중도적 입장을 보게 될 것이고, 그가 루터, 츠빙글리, 불링거와 같은 다른 개혁자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본고는 칼뱅 자신의 교회일치에 대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한 통찰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는 데서도 그 의의가 클 것이다.

## 2.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에 나타난 교회일치를 위한 칼뱅의 입장

로마 가톨릭의 위협에 맞서 공동전선을 형성하고자 했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의 회합인 마르부르크 회담(1529)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루터주의자들과 츠빙글리주의자들이 다른 모든 점에서 상호합의에 도달했으면서도 끝내 성만찬의 의미와 성만찬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함으로써 마르부르크 회담이 결렬되고 만 것이다. 성만찬에 관한 개혁자들의 불일치로 인해 일반 성도들은 성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만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칼뱅은 개혁자들 사이에 일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더욱이 그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sup>4)</sup> 개혁자들을 연합시키려는 칼뱅의 노력은 이러한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이유들에 기초하고 있

<sup>4)</sup> 주었다.”고 말한다.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2, 199.

4. John Calvin, “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 142, 163–164.

다. 여기에서 필자는 칼뱅의 성만찬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소논문」을 다루고자 한다.<sup>5)</sup>

「소논문」에서 칼뱅은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의 논쟁을 안타까워하면서 중간에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칼뱅은 마르부르크 회담의 실패가 참석자들의 태도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선의를 가지고 만나기보다는 스스로의 입장만 옹호하려 하고, 그에 반하는 것은 무엇이든 논박하려고 하면서 항상 서로에게서 점점 더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였다.”<sup>6)</sup> 그들은 적으로 만나서 더 큰 원수가 되어 헤어진 것이다.<sup>7)</sup>

한편으로 칼뱅은 루터가 무엇보다 “교황주의자들이 상상하는 것과 같은 공간적 임재를 주장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했어야만 하고, 둘째로 성례를 하나님 대신으로 승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야 하며, 셋째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유들을 삼가거나 혹은 그것들을 좀더 완화시켜 사용함으로써 공격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석했어야 한다.”<sup>8)</sup>고 쓰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칼뱅은 츠빙글리와 오이콜립

5. Brian A. Gerrish는 칼뱅의 성만찬론을 7가지 특징들로 요약하고 있다. 1) 성만찬은 은사이다. 2)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은사이다. 3) 그 은사는 표지를 통해 주어진다. 4) 그 은사는 성령을 통해 주어진다. 5) 그 은사는 교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6) 은사의 유익은 믿음을 통해 받게 된다. 7) 은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Brian A. Gerrish, “Gospel and Eucharist : John Calvin on the Lord’s Supper,” in *The Old Protestantism and New*(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112–115를 참고하라. John D.

Nicholls도 칼뱅의 성만찬론의 네 가지 특징들을 제시한다. 1) 그리스도의 몸과의 합일, 2) 성령의 역할, 3) 우리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4) 성만찬은 은혜의 수단이다. John D. Nicholls, “Union with Christ : John Calvin on the Lord’s Supper,” in *Union and Communion*(London : Westminster Conference, 1979), 36–43.

6. John Calvin, “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 165.

7. Joseph N. Tylenda, “The Ecumenical Intention of Calvin’s Early Eucharistic Teaching,” *Reformatio Perennis : Essays on Calvin and the Reformation in honor of Ford Lewis Battles*, ed. Brian A. Gerrish (Pittsburgh, The Pickwick Press, 1981), 27.

파디우스는 “선을 세우기보다는 악을 쳐부수기 위해 노력하였다.”<sup>9)</sup>고 쓰고 있다. 칼뱅은 또한 그들이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성만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어떤 교통이 일어나는지 규명하는 것을”<sup>10)</sup> 잊어 버렸다고 비판한다. 칼뱅은 「소논문」에서 루터와 츠빙글리의 적대적 태도를 한탄하였고, 유연하지 못한 그들의 완고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렇다고 칼뱅이 교회일치의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필자는 칼뱅이 일종의 합(synthesis)을 이루려고 했다는 맥닐(John T. McNeill)의 주장에 동의한다. 칼뱅은 “루터와 츠빙글리의 정(thesis)과 반(antithesis)이 하나의 합으로 만나, 그 안에서 모든 진의가 이해되고 모든 논쟁자들이 화해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sup>11)</sup> 칼뱅은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에 하나의 다리를 놓고자 하였다. 츠빙글리와 함께 칼뱅은 승천 후에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다고 주장하였다. 루터와 함께 칼뱅은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가 참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는 표지라고 믿었다. 칼뱅은 “츠빙글리의 주석적인 명료함과 루터의 종교적인 깊이와 내면성을 결합시켰다.”<sup>12)</sup> 칼뱅에게 성만찬은 하나님의 깊은 신비였기에, 그는 “나는 이해하기보다 경험한다.”<sup>13)</sup>고 고백하고 있다.

로렘(Paul Rorem)에 따르면 칼뱅의 「소논문」은 두 가지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온전한 성례전적 교통을 나눈다는 것

8. John Calvin, “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 165.

9. Ibid.

10. Ibid.

11. John T. McNeill, John T. McNeill, *Unitive Protestantism : The Ecumenical Spirit and Its Persistent Expression*(Richmond : John Knox Press, 1964), 186.

12. Ibid., 187.

1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 Ford Lewis Battles(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0), IV, 17, 32, 1403.

을 지지하면서도, 공간적 혹은 육체적인 임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sup>14)</sup> 칼뱅은 성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된 교통을 강조하여, 빵과 포도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수단들로”<sup>15)</sup> 간주하였다. 빵과 포도주는 텅 빈 표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운반하는 수단이다. 성만찬에서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칼뱅은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 아래에(under), 함께(with), 안에(in) 공간적으로 임재한다는 관념을 거부하였다. 그는 공간적 임재라는 관념은 화체설의 망령에서 유래된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16)</sup> 칼뱅에 따르면 공간적 임재라는 관념은 “망상일 뿐만 아니라 가증스러운 오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모순되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을 파괴한다.”<sup>17)</sup>

이처럼 「소논문」에서 칼뱅은 프로테스탄트주의의 일치와 평화를 위해 화해적인 논조를 유지하였다. 루터와 츠빙글리의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칼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룩한 삶과 탁월한 지식,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심에 뛰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 관해 언제나 정중하고도 존중하는 태도로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sup>18)</sup> 칼뱅은 개혁자들 사이에 일치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피력한다. “아직까지는 합의를 이룬 어떤 어떤 공식문서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 문서를 작성하고자 하실 때 그

14. Paul Rorem, *Calvin and Bullinger on the Lord's Supper*(Bramcote : Grove Books Limited, 1989), 7.

15. John Calvin, “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 147.

16. 로렘에 의하면, 칼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육체적 임재를 거부하였다. 육체적 임재는 1) 빵에 대한 미신적 우상숭배의 위협이 있으며, 2) 그리스도의 천상의 영광과 인성에 대항하는 것이며, 3) 성령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며,

4) 성만찬의 신비에 반대하는 것이다. Paul Rorem, 9 - 11.

17. John Calvin, “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 159.

18. Ibid., 166.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sup>19)</sup> 칼뱅은 루터주의자들과 츠빙글리주의자들이 우호적인 태도와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다.

칼뱅의 「소논문」이 1545년 라틴어로 번역되었을 때 루터는 그것을 읽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 학식이 있고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 논쟁을 그에게 맡겼더라면 좋았을 텐데……. 만약 나의 대적자들이 이와 같이 말했다면 우리는 화해를 이루었을 것이다.”<sup>20)</sup> 루터의 이러한 언급을 통해 우리는 칼뱅의 에큐메니컬적인 태도와 타협을 이루려는 접근방식을 잘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우호적인 태도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교회들의 일치를 위한 대화에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 3. 「취리히 합의」에 나타난 교회일치를 위한 칼뱅의 입장

#### 1) 「취리히 합의」의 역사적 배경

「소논문」이 출판된 이후에도 루터와 츠빙글리주의자들은 그들의 경쟁적인 논쟁들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 심화시켰다. 루터는 1544년 9월에 「거룩한 성례에 관한 간략한 고백」(*Brief Confession concerning the Holy Sacrament*)을 출판하였다. 이 책자에서 루터는 신랄한 공격을 펴부었다. “나는 성례의 적들, 즉 칼슈타트, 츠빙글리, 오이콜람파디우스, 슈騰크렐트, 그리고 취리히와 곳곳에 있는 그들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거부한다.”<sup>21)</sup> 더욱이 루터는 자신의 적들을 공격하기 위해 시편 1편을 패러디하기까지 했다. “복 있는 사람은 성례주의자들의 꾀를 쫓

19. Ibid.

20. Joseph N. Tylenda, 40.

21.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Agreement of Zurich(1549),” *John Calvin and the Church : A Prism of Reform*, ed. Timothy George(Louisville : Westminster Press, 1990), 45.

지 아니하며 츠빙글리주의자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취리히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sup>22)</sup> 루터의 공격에 대한 취리히인들의 반응이 1545년 「참된 고백」(True Confession)에서 나타나고 있다. 「참된 고백」의 초안자인 불링거는 츠빙글리의 성만찬론을 옹호하고 루터의 책을 “악의, 비기독교적인 표현, 중상 모략하는 말들, 다투려는 마음, 불순한 언사, 분노, 속임수, 격정과 격노로 가득 찬”<sup>23)</sup>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런 심각한 대립의 와중에서 칼뱅은 편지를 통하여 양측 사이를 중재하려고 시도하였다. 1542년 1월에 칼뱅이 루터에게 보낸 편지에서 믿음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라고 불렸다.<sup>24)</sup> 불행히도 이 편지는 루터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멜란히톤이 “마르틴 박사가 모든 일을 의심스러운 눈길로 보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sup>25)</sup>는 이유로 이 편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칼뱅은 또한 불링거에게 편지하여 루터의 인간적인 뛰어남, 그의 탁월한 재능, 하나님의 출중한 종으로서의 능력과 현신을 기억하라고 썼다.<sup>26)</sup> 이 편지에서 칼뱅은 루터에 대해서 “비록 그가 나를 마귀라고 부른다고 해도, 나는 그래도 여전히 그를 존경할 것이며 뛰어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할 것”<sup>27)</sup>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칼뱅은 특히 개혁교회 내의 일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불링거와 더불어 성만찬에 관해 상호이해에 도달하려고 열심을 내었다. 칼뱅과 불링거 사이의 편지 왕래를 통해, 두 사람 사이의 차이점들이 드러났다.<sup>28)</sup> 칼뱅은 성만찬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성만찬을 통해 신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통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고 믿었다. 반면에 불링거는 이런 도구주의(instrumentalism)를 거부했으며, 성만찬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 혹은 유비로 간주하였다. 불링거의 입장에서는 빵과 포도주는 은혜를 제공하거나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증거하거나 혹은 기억하게 해 주는 것이다.<sup>29)</sup>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칼뱅과 불링거는 일련의 서신왕래를 통해 친구가 되었고, 자신들을 분열시킬 만한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게 되었다. 칼뱅은 1544년 11월 25일 불링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쓴 바 있다.

만일 우리에게 반나절이라도 이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문제 자체뿐 아니라 그것을 문서화하는 일에서도 쉽게 합의를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서 이러한 작은 차이가 우리가 동일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sup>30)</sup>

22. Brian A. Gerrish, “The Pathfinder : Calvin’s Image of Martin Luther,” *The Old Protestantism and the New : Essays on the Reformation Heritag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33.

23. Timothy George, 46.

24. John Calvin, *Letters of John Calvin*, vol. 1, ed. Jules Bonnet (New York : Burt Franklin, 1972), 440. 이 편지에서 칼뱅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매우 탁월한 목회자이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이신 마르틴 루터 박사’라고 말하고 있다. 이 편지는 칼뱅이 루터에게 보낸 유일한 편지라는 점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교회의 일치에 대한 깊은 확신으로 가득 찬 이 편지는 존경심과 온건함으로 쓰여졌다.

25. John T. McNeill, *Unitive Protestantism*, 192.

26. Ibid., 433.

27. Ibid.

28. 특별히 칼뱅의 편지(July 1548), 불링거의 주해(November 1548), 칼뱅의 답변(January 1549), 그리고 불링거의 메모들(March 1549)이 그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들을 잘 보여 준다. Brian A. Gerrish에 따르면, 개혁교회 안에는 성만찬에 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상징적 기념설’(symbolic memorialism, Zwingli), ‘상징적 도구설’(symbolic instrumentalism, Calvin), ‘상징적 병행설’(symbolic parallelism, Bullinger)이 그것들이다. Brian A. Gerrish, “Sign and Reality : The Lord’s Supper in the Reformed Confessions,” in *The Old Protestantism and New*(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118–130.

29. Paul Rorem, 20–28.

30. Timothy George, 46.

칼뱅은 이제 취리히로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불링거를 만나기를 원했다. 교회일치를 위한 대화를 칼뱅이 주도하였던 것이다.

## 2) 「취리히 합의」의 구조와 내용

「취리히 합의」의 원제는 “취리히 교회의 목회자들과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 장 칼뱅 사이에 이루어진 성만찬 문제에 관한 상호합의”<sup>31)</sup>이다. 2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문서는 대체적으로 1549년 칼뱅의 일치를 위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계속적인 협상으로 약간의 수정을 거친 다음 1551년 출판되었다. 1554년에는 이 합의에 대한 해설도 출판되었다. 26개 조항의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 합의 조항들<sup>32)</sup>

1. 교회의 모든 영적 통치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
2. 성례들에 대한 참된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온다.
3.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본질
4. 제사장이자 왕이신 그리스도
5. 어떻게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와 교통하시는가?
6. 영적인 교통 - 성례들의 제정
7. 성례들의 목적
8. 감사
9. 표지와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는 분리되지는 않지만 구별된다.
10. 성례는 주로 약속에 의지한다.
11. 우리는 성례의 요소들을 응시하고 있지는 않다.
12. 성례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13.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사용하지만, 모든 효력은 하나님께 속한다.

31. Paul Rorem, 39.

32.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2, 212~220. 제목은 Beveridge의 번역을 따랐다.

14. 성취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다.
15. 성례들은 어떻게 배풀어지는가?
16. 성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체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17. 성례들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18. 은사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믿는 자들만 그것을 받게 된다.
19. 믿는 자들은 성례 이전에, 성례 없이도 그리스도와 교통한다.
20. 그 교통을 통해 언제나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21. 공간적인 임재를 상상해서는 안 된다.
22. “이것이 내 몸이다.”라는 표현에 대한 해설
23. 몸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24. 화체설과 기타 어리석은 이론들
25.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다.
26. 그리스도가 빵 안에 있는 것처럼 송배되어서는 안 된다.

26개 조항의 제목들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기독론적 서론(1~6), 성례에 대한 일반적 교리(7~9), 성례론적 물질주의에 대한 반박(10~15), 신앙의 필요성(16~20), 그리고 구체적인 오류들에 대한 반박(21~26).<sup>33)</sup> 아래에서는 칼뱅이 어떻게 성만찬에 대한 합의와 일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3. Timothy George, 48. 취리히 대학의 Paul Christ는 「취리히 합의」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처음 아홉 조항들은 성만찬이 단순히 ‘공허한 상징’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나머지 조항들은 칼뱅의 가르침이 공재설로 기울어져 있다는 비난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고 보았다. John Theodore Mueller은 「취리히 합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1~20항에서 칼뱅은 자신의 성만찬 이론이 가톨릭 사람들이나 루터주의자들의 견해와 다르고 츠빙글리의 견해와 본질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21~26항에서는 불링거와 취리히 - 베른 측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톨릭과 루터주의의 이론에 대한 자신의 거부입장을 분명하고도 날카롭게 밝히고 있다.”고 분석한다. John Theodore Mueller, “Notes on the *Consensus Tigurinus of 1549*,” *Concordia Theological Monthly*, Vol. 20, No. 12 (December 1949), 898, 900.

제5항과 제23항은 「취리히 합의」의 원본에는 빠져 있었다. 이 두 조항은 칼뱅의 요청과 불링거의 동의로 포함되었다. 제5항에서 칼뱅은 성만찬을 통한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교통을 강조하였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exhibit)<sup>34)</sup> 그 효력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며, 그분은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에 접붙여진다.”<sup>35)</sup> 제23항 또한 성찬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교통하는 실제적인 수단으로 이해하려는 칼뱅의 생각을 보여 준다.<sup>36)</sup> 그리스도는 “성령의 중재에 의한 신앙을 통해”<sup>37)</sup> 우리 영혼과 교통하며 우리 영혼을 먹이신다. 이 조항에서 칼뱅은 성만찬에서의 살과 피의 실제적이고 영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제6항에서 성례들은 성령에 의해 일어나는 영적 교통으로 정의되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testify) 위해서 설교와 성례들이 제정되었다. 이 조항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강조와 ‘증거하다’라는 단어가 불링거를 만족시켰을 것임은 분명하다.<sup>38)</sup> 또한 성만찬에서 복음 설교를 강조하는 것은 개혁교회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sup>39)</sup> 칼뱅과 취리히 목회자

34. 이 단어는 성만찬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칼뱅이 애용하는 단어들 중 하나이다. 「취리히 합의」에서 이 단어는 두 차례(제5항과 제8항) 사용되었으며, 1559년 「기독교 강요」 4권 17장에서 17차례나 사용되었다. Timothy George, 49.

35.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2, 213. Beveridge와 Bunting의 번역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Bunting은 이 조항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 효력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며,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의 몸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번역하고 있다. Ian D. Bunting, “The Consensus Tigurinus,” 51.

36. 제23항에 대하여 칼뱅은 1549년 6월에 불링거에게 이렇게 편지하였다. “지금 까지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껏 표지라고 불렸기 때문이고, 특별히 살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문서에 어떠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이다.” Paul Rorem, 45.

37.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2, 219.

38. Paul Rorem, 41.

39. Brian Gerrish는 칼뱅의 성만찬 이론을 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신앙의 행위 안에 임재하신다. 둘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활동을 통해 임재하신다. 셋째로, 외적 수단의 관

들은 “성례는 일종의 보이는 말씀”<sup>40)</sup>이라고 생각했다. 제10항에서도 역시 성만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칼뱅과 취리히 목회자들은 이 조항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다. 성례를 행할 때에 “사람이 단지 자신의 눈만 열어 두고 귀는 닫는다면, 성례들은 이교의 세속적인 의식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게 될 것이다.”<sup>41)</sup> 여기에서 우리는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라는 물질적 요소에 말씀이 더해지고, 말씀이 선언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성례가 된다는 칼뱅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칼뱅은 성만찬이 있는 날에는 목회자들이 설교 전체를 통해 혹은 적어도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성만찬의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2)</sup>

제7항은 우리에게 츠빙글리의 성만찬 이론을 상기시킨다. 제7항은 ‘성례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교제의 표지와 상징이 되는 것이며,’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상징하며, 보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43)</sup> 로렘이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용어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츠빙글리가 선호한 것들이다. 로렘에 따르면 제7항은 두 개의 츠빙글리주의자의 논지로 시작된다. 첫째는 성례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표지들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성례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sup>44)</sup> 츠빙글리는 성만찬이 갈보리의 희생에 대한 기억이며 그리스도

점에서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임재하신다. 이 세 가지, 즉 신앙, 성령, 말씀은 나누어질 수 없다.” Brian A. Gerrish, “Gospel and Eucharist : John Calvin on the Lord’s Supper,” 109.

40. “Exposition of the Heads of Agreement,” in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2, 225.

41. Ibid., 228.

42.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Strassburg, 1545 and Geneva, 1542,” i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ed. by Bard Thompson(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80), 204.

43.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2, 214.

44. Paul Rorem, 42.

의 구속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제7항이 츠빙글리의 가르침에 가까운 것이라면, 제8항은 칼뱅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제8항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의 눈과 다른 감각에 표상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sup>45)</sup> 우리 안에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성령은 성만찬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도록 하는 끈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활동에 의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칼뱅의 성만찬 이론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성령에 대한 강조이다.

제9항은 성만찬에서 신앙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제9항은 “우리는 표지로부터 실체를 분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만찬 때에 주어지는 복음의 약속을 믿는 신앙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은사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sup>46)</sup>고 말하고 있다. 제16항에서부터 제20항까지도 성만찬에서의 신앙의 필요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 성만찬의 효력과 유익을 받는 것이다. 신앙이 없다면 표지들은 ‘헛된 것’이고 ‘공허한 것’이다.<sup>47)</sup> 그러므로 신자들은 표지 그 자체에 관심을 집중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늘로, 즉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올려야 한다. 여기에서 성례전 용어인 수르숨 코르다(sursum corda, “마음을 높이 들어올리라.”)가 적용될 수 있다. 「소논문」에서 칼뱅은 “우리는 모든 육욕적인 상상들을 차단해야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려 썩어질 물질 아래에 가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늘 높이 들어올려야만 한다.”고 괴력한 바 있다.<sup>48)</sup> 이것이 바로 신앙의 행위이다. 우리는 신앙의 분량만큼 성만찬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사들을 받게 된다. 성령, 수르숨 코르다, 신앙, 이 세 가지가 개혁교회 전통의

45.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2, 214–215.

46. Ibid., 215.

47. Ibid.

48. John Calvin, “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 166.

성만찬 이론에서 중요한 특징이 된다.

제12항에서 제14항까지는 뺑과 포도주의 성격에 관한 칼뱅과 취리히 목회자들의 견해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편으로 성례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수단’(helps)이고 ‘도구’(instruments)<sup>49)</sup>이자 ‘도움의 방책’(aids)이다.<sup>50)</sup> 다른 한편으로 성례들은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만찬에서 우리로 자신에게 참여하도록 하실 수 있다. 이 조항들은 성만찬을 둘러싼 칼뱅과 불링거의 일치를 위한 노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제16항에서 칼뱅은 다소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조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한 자들에게만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중하게 가르친다.”<sup>51)</sup> 오로지 믿는 자들만이 자신의 믿음에 따라 성만찬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17항에서도 성례는 그 자체로 아무런 은혜도 베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sup>52)</sup>

제21항에서 제26항까지는 로마 가톨릭과 루터주의자들의 성만찬 이론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를 표시한다.<sup>53)</sup> 칼뱅과 취리히의 목회자들은 공간적 임재라는 개념을 거부했으며, 그리스도의 몸은 공간적으로 하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가톨릭의 화체설(transubstantiation)<sup>54)</sup>뿐만 아니라 루터의 공재설(consubstantiation)<sup>55)</sup>도 거부하였다. 그들에

49. 로렘은 이 단어(organa)를 도구(instrument)가 아니라 방편(implement)이라고 번역한다. 그것이 타협을 위한 여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orem, 43–44.

50.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2, 216.

51. Ibid., 217.

52. Ibid.

53. Ibid., 218–220.

54. 루터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용어는 속성의 교류(communicatio idiomatum) 이론에 근거한 루터의 편재설 때문에 후대의 역사가들이 붙인 것이다.

따르면 뺑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가 뺑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뺑과 포도주는 그저 뺑과 포도주일 뿐이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는 제정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하였다.

「취리히 합의」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성만찬에 대한 칼뱅의 견해에서 성령과 신앙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비록 그리스도의 몸이 육체적으로는 하늘에 있다 할지라도, 동시에 영적으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만찬에 참으로 임재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의 비밀스러운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 성만찬 때에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는 칼뱅의 주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만찬의 효력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신앙이다. 프루엣(Gordon E. Pruett)에 따르면, 성만찬에서 신앙의 역할에 대한 칼뱅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단지 공허한 표지만을 받을 뿐이다. (2) 신앙으로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3) 신앙은 또한 성만찬의 열매이기도 하다.<sup>55)</sup> 이런 견해는 개혁교회의 일치를 위한 칼뱅의 양보의 결과이기도 했다. 칼뱅은 성례 그 자체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성례를 성령과 신앙을 통해 받지 않는 한 아무런 은혜도 끼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츠빙글리주의자들과의 타협을 위한 여지를 마련했다. 더욱이 칼뱅은 성만찬에서 그리스도가 공간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생각에 반대함으로써 취리히 교회와의 공통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취리히 합의」에서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16세기의 제네바와 취리히 개혁교회들의 일치를 위해 애쓰는 칼뱅을 만나게 된다.

55. Gordon E. Pruett, "A Protestant Doctrine of the Eucharistic Presence,"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10, No. 2(November 1975), 143-144.

### 3) 「취리히 합의」에 대한 평가와 여파

「취리히 합의」는 분열과 격변의 시기에 개혁교회가 이룬 일치운동의 성과로서 탁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sup>56)</sup> 「샤프-헤르조크」 전문사전은 「취리히 합의」에 대해 “칼뱅과 취리히에서 츠빙글리를 계승했던 불링거의 성만찬에 관한 일치된 견해를 담고 있는 개혁교회의 신조 가운데 하나이며, 성만찬이란 주제에 관한 개혁교회의 이론을 알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최상의 자료들 중 하나이다.”<sup>57)</sup>라고 기술하고 있다. 바젤의 역사가인 슈테헬린(Ernst Staehelin)은 이 합의를 “츠빙글리주의자들과 칼뱅주의자들의 개혁운동이 하나의 개혁교회로 영구히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든 중대한 합의문”<sup>58)</sup>이라고 평가하였다. 「취리히 합의」는 칼뱅의 후반기 교회일치 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헌이었다. 「취리히 합의」를 통하여 칼뱅은 스위스 개혁교회가 칼뱅주의와 츠빙글리주의라는 두 집단으로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sup>59)</sup>

필립 샤프(Philip Schaff)에 의하면 “칼뱅은 루터와 츠빙글리의 중간에 서 있었고, 그의 신앙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적이며 실재적인 임재 이론으로 양측의 올바른 요소들을 연합시키고자 노력하였다.”<sup>60)</sup> 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임한 사람은 칼뱅이었으며, 합의문서의 출판을 재촉한 사람도 칼뱅이었다. 로렘의 말처럼 칼뱅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빼는 데 동의했기”<sup>61)</sup> 때문에 칼뱅과 불링거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프랑

56. John Theodore Mueller, 907.

57. Paul Christ, "Zurich Consensus," in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vol. 12(New York : Funk and Wagnalls Company, 1912), 536.

58. Timothy George, 42.

59. John Theodore Mueller, 909.

60.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III(New York : Harper & Brothers, 1877), 232. Cited by John Theodore Mueller, 895.

61. Paul Rorem, 54.

수아 방델(François Wendel)은 「취리히 합의」는 여러 면에서 수차례 계속된 양보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칼뱅주의 이론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기초로 이 문서를 택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sup>62)</sup> 고 경고하기까지 하였다. 방델의 이런 언급은 칼뱅이 개혁교회의 일치를 위해 자신의 견해를 많이 양보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샤프는 또한 「취리히 합의」가 가져다 준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취리히 합의」는 스위스 개혁교회에게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개혁교회와 루터를 따르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제2의 성만찬 논쟁을 야기하였다.<sup>63)</sup> 요아킴 베스트팔(Joachim Westphal)이나 텔레만 헤슈시오스(Tileman Heshusius) 같은 엄격한 루터주의자들은 칼뱅에 대해 신랄한 공격을 가했으며, 그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기까지 하였다. 칼뱅은 1554년, 1556년, 1557년, 1561년에 계속하여 그들에게 응답하였다. 「마지막 권고」(Last Admonition to Joachim Westphal)에서도 칼뱅은 교회일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주님께 탄원할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적대자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고 있지 않지만, 주께서는 이런 불행한 분쟁의 치료책을 찾아주실 것입니다.”<sup>64)</sup> 에밀 두메르그(Emile Doumergue)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따

62. François Wendel, *Calvin :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Philip Mairet(Durham : The Labyrinth Press, 1963), 330.

63.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I, 471–473.

64. John Calvin, “Last Admonition to Joachim Westphal,” *Tracts and Treatises*, Vol. 2, 494. 칼뱅은 한때 “루터가 아직 살아 있으면 했더라도 좋았을 것을…… 그가 맹렬하긴 했어도 그의 추종자들만큼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루터의 추종자들은 제자들이라고 불리기보다는 모방자들이요, 흥내내는 원숭이들이라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한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불령거는 칼뱅과 의견을 달리하여 “친애하는 칼뱅이여 루터가 아직 살아 있다고 해도 그는 결코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 있는 동안 루터는 결국 츠빙글리와 오이콜람파디우스에게 손을 내밀기를 거절했었다.”고 말했다. John T. McNeill, *Unitive Protestantism*, 85–87.

면 칼뱅은 일치의 영이었고, 베스트팔은 분열의 영이었다.<sup>65)</sup>

몇몇 학자들은 「취리히 합의」가 칼뱅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츠빙글리 주의적인 경향으로 기울었다고 보고 있다. 엄격한 루터주의자들의 대변자인 프리드리히 벤터(Friedrich Bente)는 칼뱅의 성만찬론에 ‘칼뱅의 츠빙글리주의’라는 딱지를 붙였다. 벤터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성만찬에 관한 칼뱅과 그의 추종자들의 교리는 종종 실질적으로 변형된 츠빙글리주의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 칼뱅의 교리는 루터가 가르친 실제적 임재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 사실상 칼뱅의 교리는 츠빙글리의 유치한 가르침에 광을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66)</sup>

이것은 「취리히 합의」가 한편으로는 개혁교회들 사이에서 무너지기 쉬운 허약한 일치를 이루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교회와 루터주의 교회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초래했음을 뜻한다. 티모디 조지(Timothy George)가 지적하듯이, 「취리히 합의」는 일치인 것만큼 분열이기도 하였다.<sup>67)</sup> 결국 칼뱅과 루터주의자들은 서로에 대하여 적대감을 표출하였다. 칼뱅은 1559년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루터주의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확실히 어떤 자들(루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털끝만큼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수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나는 지금 교황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황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오히려 더 참을 만하거나 적어도 더 온건하다.”<sup>68)</sup>

65. John T. McNeill, *Unitive Protestantism*, 200.

66. Friedrich Bente, *Triglot Concordia*(St. Louis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20), 174.

67. Timothy George, 55.

68. John Calvin, *Institutes*, IV, 17, 30, 1402. Emile Doumergue는 “만일 칼뱅이 츠빙글리보다 루터를 높이 평가했다면, 그보다 더 그는 루터주의자들보다 츠빙글리주의자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츠빙글리주의자들은 자기 스승을 완화

루터주의자들의 주요한 신앙고백서 중 하나인 「협화신조」(*The Formula of Concord*, 1577)에서, 그들은 칼뱅주의자들을 “음흉한 성례주의자들, 가장 유해한 족속들”<sup>69)</sup>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개혁교회 신학자들과 루터주의자들은 마치 루터와 츠빙글리가 마르부르크 회담에서 서로를 외면하고 돌아섰던 것처럼 분리되고 밀았다. 이런 점에서 「취리히 합의」는 절반의 성공이었으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취리히 합의」의 중요성과 개혁교회의 일치에 기여한 칼뱅의 교회일치 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 4. 맷음말

본 고에서 필자는 칼뱅의 교회일치에 대한 열정과 활동을 고찰하였다. 그의 열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칼뱅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가시적 교회들의 하나님을 믿었다. 따라서 누구라도 교회가 말씀과 성례의 참된 표지를 지니고 있는 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sup>70)</sup> 칼뱅에게 말씀과 성례는 참된 교회의 두 기둥이었다.<sup>71)</sup> 그는 관습, 의식, 조직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교회의 일치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sup>72)</sup> 이러한 원칙들 내에서 칼뱅은 하나님

시켰고, 루터주의자들은 자기 스승을 과장하였다.”고 평한 바 있다. John T. McNeill, *Unitive Protestantism*, 187 note 27.

69. Justo A. Gonzá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III(Nashville : Abingdon Press, 1975), 116.

70. John Calvin, *Institutes*, IV, 1, 10, 1024.

71. Rodolphe Peter, “Calvin and Liturgy, according to the Institutes,” *John Calvin’s Institutes : His Opus Magnum*(Potchefstroom :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86), 249.

72. John Calvin, *Institutes*, IV, 1, 12, 1026, and IV, 10, 31, 1209. 칼뱅은 기독교 신앙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였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기독교 신앙에서 본질적인 것들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었다. 하나님은 한

의 교회의 하나님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의 용어를 빌어 표현하자면 칼뱅은 ‘다양성 속의 일치, 일치 속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칼뱅의 교회일치 정신은 그의 「소논문」과 「취리히 합의」에 잘 나타나 있다. 「소논문」에서 “칼뱅은 한편으로는 성례전적 표지와 실체를 분리시키려는 츠빙글리주의자들에 반대하여 성만찬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온전한 교통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고 확신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표지와 실체, 즉 그리스도의 몸을 결합시켜 동일시하는 루터주의자들에 반대하여 성례에서의 육체적 임재를 반대함으로써, 칼케돈의 중용의 길을 택하였다.”<sup>73)</sup> 「소논문」을 통해 칼뱅은 루터주의자들과 츠빙글리주의자들의 간격에 다리를 놓고자 한 것이다. 「취리히 합의」에서 칼뱅은 개혁교회들 사이에서 성만찬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다. 비록 「취리히 합의」가 개혁교회와 루터주의 교회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한데다가 개혁교회 안에서도 결코 공식적인 신앙고백으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그것은 개혁교회의 교회일치 역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sup>74)</sup> 실제로 교회일치를 염원하는 칼뱅의 열정은 그의 시대에는 특별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칼뱅은 교회일치의 신학자였고, 교회의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sup>75)</sup> 칼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열하고 있는데 큰 슬픔을 느꼈으며,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시편 133편 주석에서 칼뱅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큼, 우리 가운데 상호화합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

73. Paul Rorem, 11.

74. John Theodore Mueller, 907.

75. Otto Weber, “Calvins Lehre von der Kirche,” in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Neukirchener Verlag des Erziehungsvereins, 1968), 54.

과 형제애적인 사랑으로 일치가 화증되어야만 한다.”<sup>76)</sup>고 주장하고 있다. 「기독교 강요」 최종판의 서문에서도 칼뱅은 “내가 교회에서 교사의 직책을 맡은 이후, 나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적이 없다.”<sup>77)</sup>고 진심으로 공언하였다. 게다가 칼뱅은 사돌레토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항상 말과 행동으로 내가 얼마나 일치를 열망하는지를 밝혀 왔습니다.”<sup>78)</sup>라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참으로 칼뱅은 교회의 교사였으며, 교회일치를 추구한 종교개혁자였다.

---

76.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V, tr. by James Anderson(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49), 164.

77. John Calvin, *Institutes*, I, preface, 4.

78.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X, ed., G. Baum, E. Cunitz, and E. Reuss(Brunswick and Berlin, 1863-1900), 409.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 A Sixteenth-Century Portrait*(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215에서 재인용.